

코로나 확진자 급증... 중증 병상 대란 우려

광주·전남 연일 2만여명 확진
중증 병상 가동률 80% 육박
전국 평균보다 10%p 높아
오늘부터 8인 모임 가능
선별진료소 오후 6시까지 운영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연일 2만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방역 완화를 결정하면서, 중증환자 병상 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광주시 코로나19 병상 973개 가운데 467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48.0%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병상 1980개 가운데 750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41.4%로 나타났다.

연일 지역에서 2만명 이상이 신규 확진되고 있지만 가운데 90% 이상이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도 병상 가동률은 40~5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가 호흡이 어렵고 산소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 등 위중환자 전용 병상인 중증 환자용 병상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광주·전남 중증병상 전체 90개 중 69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이 76.6%에 이르고 있다. 광주에선 기독병원에 마련된 중증 병상 6개가 이미 한 자로 가득 찼고, 전남의 경우 순천 성가톨릭병원 중증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다. 목포한국병원 중증병상 9개 가운데 잔여 병상은 1개 남았고 화순전남대병원 중증 병상은 10개 중 2개가 남았다. 광주·전남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국 66.5% (18일 0시 기준)와 비교해도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로,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할 경우 중증병상 부족 등 의료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방역 전문가



20일 오후 광주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 '무등풍류단-봄 마중 가세~' 행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의 줄타기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휴일을 맞아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시간(밤 11시)과 행사·집회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 결정에 앞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의료 분과 전문가들은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소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중증 환자용 병상 확보 등이 시급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1일부터 광주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오후 8시에서 6시까지로 2시간 줄인다.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1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 검사를 시행한다. 지난 14일부터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선별진료소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선별진료소는 확진자와 검사량이 폭증하자 지난 1월 15일부터 오후 6시에서 8시로 마감을 연장했다. 다만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2~10시, 하나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1~9시까지 현행대로 운영한다. 이날 0시 현재 당일 신규 확진자는 광주 1만31명, 전남 1만898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선언

“국방부 청사로 옮겨 근무”
이전 비용 등 논란 클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 비용 및 반대 여론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정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우 조치에 따라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 집무실’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제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고 윤 당선인은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일부 우려 여론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약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에서 집무실까지의 이동에 대해서는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
1주택자 증부세 폐지 거론
정부·민주당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10면>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오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한번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증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증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증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 증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1 지방선거가 두달여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의 궤도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본사 인사

- ▲ 최재호 : 편집총괄국장·전무이사
 - ▲ 임동욱 : 서울취재총괄국장·이사
 - ▲ 채희중 : 편집국장(정치담당)
 - ▲ 장필수 : 편집국장(사회담당)
 - ▲ 박진현 : 문화·예향담당국장
 - ▲ 유계관 : 편집담당 1국장
 - ▲ 정재경 : 편집담당 2국장
- (3월 21일자)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